

마비정 벽화마을

화원읍 본리리에 위치하며 35가구의 담장에 그려진 정겨운 풍경의 향토적인 벽화들을 만나볼 수 있는 마을이다. 말의 슬픈 전설이 있다하여 '마비정' 마을이라 불리며 연리지 사랑나무, 돌배나무, 장수 거북바위 등 벽화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도동서원

도학의 창시자인 한훤당 김굉필 선생을 배향한 서원으로 1605년 중건되었다. 서원내에는 단아한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토담과 400년된 은행나무는 고즈넉한 풍경을 자아낸다.



디아크

2012년 9월 개관한 4대강 문화관으로 다사읍에 위치해 있다. 밤이면 다양한 조명으로 색다른 야경을 선물하며, 진화된 복합 공간이 물이라는 주제와 만나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완성되도록 한 곳이다.



달성보

총 연장 580m, 높이 9.5m의 달성군 논공읍과 고령군 개진면을 잇는 보로서 낙동강을 향해하는 뱃머리를 형상화해 건설되었다. 전망대와 천년별빛광장, 자전거길 등을 갖추고 있으며 낙동강 물레길 마라톤, 낙동강변 문화예술 어울마당, 일요문화장터 등의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진다.



달성 한일우호관

임진왜란 때 명분없는 전쟁을 반대하며, 부하 3,000여명과 함께 조선으로 귀화한 일본무사 김충선 장군의 박애주의를 기리기 위해 2012년 개관한 기념관으로 한·일 양국의 전통놀이와 다도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사문진 낙조

사문진은 화원동산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문진교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나루터가 있던 곳이다. 아름다운 낙조로 많은 출사가들이 찾는 곳이며, 국내 최초 피아노 유입지로 달성군에서는 2012년 '99대 피아노 콘서트' 를 개최하였다.

